



1차 유세

시간 :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 민주광장

2차 유세

시간 :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 민주광장

투표일

시간 : 11월 19~20일 수·목요일

이주영, 이영미와 뽀뽀롱 스타킹이
6천6백여 동덕인께 드립니다.



반역의 지성

의 뽀뽀롱

민주동덕 31대 총학생회 후보
반역의 지성 이주영·이영미 & 뽀뽀롱 스타킹 선거운동본부

폭력과 불평등이 지배하는 시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순응하는 시간

그러나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

반역의 지성

민주동덕 31대 총학생회 후보 이주영 이영미와 삐삐롱스타킹 선거운동본부

'97년 한국사회 답사기

신년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 총파업

87년 이후 일천만 노동대중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파업결의!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감행되는 대량해고와 감원, 퇴직금 우선변제 적용 등 이 땅에서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넥타이 부대까지 등장한 노동자 총파업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바는 무엇일까?



한보사태를 시발로 기아사태까지 이르는 중소기업 부도와 끊이지 않는 자금악화설

부실한 한국경제, 부실 경영이 부른 극악의 사태. 민중들에겐 경제위기라지만 커다란 사과상자가 재벌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재벌들과 더러운 정치권이 결합한 정경유착이 존재하는 한 경제·정치적인 비리는 끝일 날이 없을 것이다.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운동의 위기폭발

벼랑 끝에 치달은 학생운동, 더 이상 갈 곳은 없는가? 이석씨 치사 사건으로 인한 한총련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그 후로 각급 학생회 간부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연일 계속되는 마구잡이 연행과 소환장, 수배... 학생회 등 학생 자치 단체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다.



무자비한 강제철거와 故 박순덕 열사의 죽음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무차별적 재개발 사업. 그것이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참혹한 모습이다.

충격! '빨간 마후라' 사건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사회가 만들어 놓은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와 행동을 재단당하는 우리의 미래이다. 부쩍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비율과 고3 수험생의 과로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규격화된 틀 안에 가두어두지 말라!"

인권영화제, 퀴어영화제에 대한 검열과 통제, 『천국의신화』검열로 인한 한 예술인의 절필 선언! ... 그리고 cyber로 통제한다.



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에 가해지는 형벌은 'NO!'. 법 조항에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주민카드로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통제하려는 음모와 만화탄압, 제반 미디어에 가해지는 검열의 가위를 던져버리자.

매매춘 업소가 문을 닫으면 성폭력이 없어진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다. 매매춘 업소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전체 성폭력 사건의 30%도 채 안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성의, 남성의 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화하려는 자본의 의도는 철저히 가려져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대선!, 한국노동당이 한국농민당!

사상검증토론회, TV토론회, 신문지 상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미래도 찾을 수 없다. 자신들의 실리만을 위해서 웃고 우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대선에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먹성여대 재단비리, 교수임용! 본질적인 비리가 끝아 이제는 터진다.

모든 교수들이여 지식상인으로 전락하라. 모든 학생들이여, 순종하고 조아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경쟁력 딱지를 부여될지니.....

회피하지 않는 맑은 눈빛!

단절의 꿈은 똑바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기/문/이/다
이/주/영 · 이/영/미가 있습니다



반역의 지성 그 새로운 희망의 어법!!



총학생회장 후보
이 주 영(무역II 3)

76년 서울 출생
95년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무역학과II 입학
제1대 무역학과 학생회장 역임
96년 제4대 야간학과 총학생회 학생회장 역임
97년 제4대 야간학과 총학생회 학생회장 역임
동덕 중앙 어류농학대 농학대장 역임
현 제31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임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 영 미(아동 3)

76년 서울 출생
95년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입학
아동학과 동물해한소리 입회
96년 여성운동공동위원회
'길들지 않는 자진갑' 활동
97년 여성운동 행동위원회
'길들지 않는 자진갑' 위원장 역임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인대회의' 동덕대표 역임
현 제31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임후보

C·O·N·T·E·N·T

오늘 우리는 행동한다.

1

불평등과 폭력의 시대!

단절의 꿈은 생성을 꿈꾸는 실천미학

시대 총론

행동대제

2

단절의 꿈! 그 새로운 화망을 향한 동덕의 어법

처음타본 반역의 타임머신

학생회 - 반역의 실천 미학

교육 - 상업주의가 낳은 20C말의 코미디

여성특화대학 - 다름의 목소리, 이제 우리의 자궁을 노래하자!

오늘 우리는 행동한다.

3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 생성의 정치로

역사를 밀어간다.

문화 - 자유와 평등을 향한 만인의 연대를 위하여

노동 -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평화와 인권 - 한반도의 반전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대선 - 민주와 진보를 향한 대학과 노동의 연대

1

1. 불평등과 폭력의 시대

단절의 꿈은
생성을 꿈꾸는 실천미학



프롤로그.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한충런 사태,

그후 학생정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새로운 사회성을 실현해야 할 학생들이 적과 싸우다가 적을 달아 버린 폭력의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학생운동권은 똑바로 응시하지 않으며 합니다.

"정권의 광적인 탄압에 비하면 학생운동이 보인 폭력은 매우 미미할 뿐이다."

"학생운동이 입은 도덕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뿐이다."라며, 봉사활동을 운동의 전부인양 포장합니다.

"왜? 허필 지금인가? 정권이 탄압하는 지금인가?"라는 식으로 정세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면 다시 이야기하지라는 한이한 생각으로 일관합니다.

학생정치의 폭력성이라는 문제를 이같은 심기순변으로 회피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문제를 피격하면서, '학생운동 혁신 운동' 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혹은 과거의 단절없이 몇 년이 지난 이야기를 반복하는 물질세적인 태도가 좋은 것입니까?

문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진정 학생운동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폭력성'으로 비난 받는 학생정치의 근본성격을 다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불량무한 구조에 폭력을 되풀이 주어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것만으로, 비폭력의 봉사에 입각한 도덕성으로 폭력에 반대하는 역론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의 고난 지향적인 새로운 삶의 가치와 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장 합니다.

학생운동은 대항폭력과 비폭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즐겁게 실천함으로써

단절할 것을 단절하는 꿈이 분출하는 대학으로

역사를 밀어 가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번씩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나는 하루에 몇번씩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밟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영화적이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지 1주일

만에 길에서 만난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나는 나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나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이유는 주

명할 길이 없으므로.

최저저당차의 수입은 매해 올라우려 만큼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는 창세이고,

중소기업은 팔팔것도 없이 대기업들이 천일 도산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마저 빼앗기고 있는 공포!

수십층의 아파트들은 미분양되고 있는데, 전셋집에서 쫓겨난 한 가정주부는 강제철거로 인해 6층 높이(16m)의 철망에서 떨어져 죽은 비이성적인 현실!

경제적인 효율을 이유로 여성에 대한 권력이며,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리휴가마저 피수당하는 것이 태라라고 힘찬한 사회적 억압!

출생식 이후 정권에 의해 진행되는 한층연해 대한 억압과 미구잡이식의 연명, 관습적 사상은 비인도적인 폭력행위들!

난 하루에도 몇번씩 너무도 만들어진 듯한 영화를 보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실이 영화가 아닌 내 주변의 이야기라는 것이며,

내가 언제 처할지 모르는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다!





폭력과 불평등의 시대

인권에 대한 영화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할수 없는가?

'저항', '투쟁'이라는 말이 낡은 유물처럼 우리의 일상속에서 지워져가는 반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몇 달전 제도 언론의 협박과 공권력의 강제지시로 멧뚱하게 막을 올려보지도 못한 '인권영화제'와 '퀴어 영화제'... 인권유린의 현실과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숨기는데 급급한 현 사회구조는 우리의 불권리를 아주 무참하게 유린했고, 성적 소수집단의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행사장 봉쇄, 그리고 행사강행시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실형을 물리겠다는 폭력적인 협박에 굴복할수밖에 없었다. 굴복하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했던 홍익대는 무려 3번의 폭력 침탈을 당했다.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의 시집살이도 없어진 지금, 우리는 봉건제와 같은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현실속에서 강요당하고 있다.

1. 보이지 않는 폭력들-상징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민족이데올로기... 그 억압적 공동체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어진다. "이처럼 일상화된 폭력과 정치/경제적 소외의 심화가 인간으로서 용당 내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빼앗은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불만은 저항적인 행동이 아닌,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가?"

그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원시킬수 없다. 한국사회는 차별화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배제를 토양으로 하고 있는 억압적인 공동체이다. 또한 그것은 그러한 차별과 배제를 당연한 것인양 포장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이 그 기본 틀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형태와 가족제도등의 억압적인 공동체는 그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민족형태라는 억압적 공동체와 이에 결합해 있는 국가주의이데올로기의 효력은 어떠한가? 전세계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치 공동체인 민족형태속에서 경쟁력 강화나 경제살리기와 같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들은 억압이 아니라, 미명으로 인식되며 그 억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야합=집사람??

보이지 않는 또다른 폭력...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다. 가족은 화목하다. 그러나, 그안에 무수한 희생들이 당당히 강요당해지고 있다. 남자는 바깥일에, 여자는 집안일에, 그래서 아내의 호칭도 '집사람'이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보면, 공과 사의 이분화된 공간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할시키는 가족

주의 이데올로기는 정치·경제와 같은 공적인 것을 남성의 영역으로, 미발전된 사적인 것은 여성의 역할로 경계를 짓는다. 결국 이같은 가족이데올로기의 효과속에서 사회체계의 지배적 가치와 삶의 양식은 남성중심적이며, 남성이 재역할을 하기위해 여성은 내조를 해야하는 등의 남성에게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길러진다.

네모난 교실에 네모난 아이들...

보이지 않는 또다른 폭력-학교제도

학교를 통해 별무리 없이 통제되는 지식이 결국에는 기존 질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억압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주입하는 역할로 변모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준다는 "윤리" 교과서는 "검인정 국정 교과서"로 어느 학교나, 어느 아이에게나 공통 필수이다.

나아가 학교에 대한 사회 성원의 접근이 시험과 검열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속에서 통제되어, 1등부터 꼴등까지 하나의 잣대로 서열화된다.

폭력들은 얹혀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전체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제도, 학교제도, 이것을 통칭하여 우리는 "체제"라고 한다. 체제는 앞서말한 당연하다고 생각된 폭력들의 그물이다. 빈부의 격차와 국가의 무분별한 폭력, 그리고 이에 결합한 가족제도, 학교제도 등의 폭력성이 만인을 차별과 서열화 그리고 소외와 배제속에 순응시켜 나가며 유지되고 있다.

2. 적과 싸우려다 적을 달아 버린 한총련!!

한총련 사태, 그후!

작년 연대사태 이후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의 표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맹공격으로 이적성, 폭력성, 불법성이라는 이단의 딱지를 달게 되었다. 기다리길래도 한 듯, 학교당국들 또한 "도를 지나쳐 버린" 학생운동이 대학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면서 이른바 학생자치활동지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한총련출범식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권은 벌써부터 한총련의 이적성과 폭력성을 상기시키며 출범식 원천봉쇄라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다. 결국 한총련 출범식은 막대한 진압장비로 무장된 국가권력의 강위력한 물리적 폭력에, "전민항쟁을 통한 김영삼정권의 대선전 조기타도"를 외치는 한총련의 쇄파이프가 격렬하게 대결하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달으며, 몇몇 젊은이가 죽고, 학생운동은 지난시절 학생운동을 빛나게 만들었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된다.

적과 싸우려다 적을 달아버린 학생운동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짓된 위선과 논리, 그리고 통제의 잣대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이나라 모든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행위를 억압하는 국가의 폭력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석씨의 죽음뒤에 가려져 있는 정권의 비이성적인 학원 프락치 공작, 연대사태이후 벌써부터 한



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모든 학생집회에 이적의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빈번한 공권력 행사로 류재을씨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사례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이 비이성적 강제와 폭력을 아무리 비판하고 성토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며 또한 피해서도 안되는 중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양산해내고 있는 모든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고자 했던 학생운동에 지배세력의 모습을 담은 폭력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었다는 사실! 세간의 비판 그대로 "새로운 사회상의 평야를 보여주어야 할 학생운동"이 "적과 싸우다가 적을 달아버린 모습"으로 자신의 형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만 것이다.

3. 단절의 꿈이 분출하는 대학! 그 '생성의 힘' 이 사회를 밀어간다.!!!

모든 보이지 않는 폭력 형태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단절의 미학-생성의 갈망을 품은 단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폭력과 불평등의 조건들에 폭력을 되돌려 줌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척결하는 것이나, 간디의 정신적 잔상을 그리게 하는 비폭력의 도덕적 우위로 적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이시대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우리는 단절할 것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그러나 단절이 파괴나 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안에는 무수한 생성의 갈망이 녹여져 있다. 단절의 꿈은 '생성'을 갈망한다. 단절의 꿈은 파괴를 넘는 창조의 미학으로, 봉기를 넘는 구성의 미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착취와 억압의 조건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조건들을 어떻게 생성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 해할수 있어야 한다.

생성의 미학-인간들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적가치와 삶의 양식을 창조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억압적 공동체와 상징폭력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생성시키자. 평등한 인간을 우등과 열등의 불평등한 관계로 분할하며 서로를 반목과 질시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보이지 안흔 폭력에 맞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간들 사이의 새로운 유대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주장하고 만들어가자!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생성하는 정치! 학생운동의 새로운 대안은 이러한 '생성'의 정치를 갈망한다.

차이와 연대: 패권과 배제에 맞서 다양한 차이들의 공존을 '생성'하는 정치

우리는 현 정치권과 지배세력의 사이비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학생운동권조차 패권적 권력독점의 미련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학생 사회의 정치적 소수자들의 행동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이 썩어빠진 현실을 통탄해야 한다.

폭력적 독점의 논리 아래 패권을 행사하고 이질적인 행위들을 총학생회로부터 배제하는 학생정치의 제도화된 폭력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다양한 이질적 입장들의 차이가 공존하고, 이러한 차이의 주장들이 격렬하게 논쟁되어, 학생 사회의 지향을 더욱 풍성하게 생성시킬수 있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통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자유롭게 못한 획일적 평등도 아닌, 평등하지 못한 적대적 경쟁의 자유도 아닌, 자유로운 평등-평등한 자유를 지향하는 차이와 연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생성시켜야 한다. 패권과 배제에 맞서 다양한 차이들의 공존을 '생성'하는 정치!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은 이러한 생성의 정치를 갈망한다.

단절의 꿈이 분출하는 대학! 그 생성의 힘이 사회를 밀어간다.!!

우리들은 행동한다. 지식에 내재된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며 학문에 대한 새로운 통제방식으로 등장하는 자본주의적 학문통합에 맞서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나갈 진보적 학문통합의 모델을 교수·학생이 연대해 생성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이윤창출의 자원만을 제공하는 인력공장의 모습으로 전락한 대학의 표상을 대안적 가치와 진보적 문화의 수원지로 형성해나갈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사회에 교통시키는 만인의 평등한 교육공간으로 대학을 전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개발이데올로기의 미명아래 파괴당하고 환경파괴의 현실에 맞서 생태친화적인 사회를 향한 발언과 행동으로 보편적 인류의 환경권을 옹호해 나갈 것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지식과 생활공간에 생태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캠퍼스를 생태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위계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여성의 몸과 관련한 모든 지배적 가치로부터 단절해, 억압돼 있는 여성성과 인간간의 평등한 유대의 상을 제기해 나갈 것이다. 무한경쟁의 현실속에 점증시키는 전쟁의 위기와 인종적 편견이 야기하는 인권침해에 반대하고, 만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새로운 실천을 제기해나갈 것이다. 패권과 배제에 맞서는 '차이와 연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열풍을 대학에서 사회로 전파해나갈 것이다. 단절이 꿈이 분출하는 대학! 그 생성의 힘으로 시대를 넘어설 때까지!!!

폭력과 불평등의 시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순응하는 시간!

그러나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

모든 폭력형태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연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행동한다.



1. 학생회의 패권과 배제에 뛰어넘어 진정한 차이와 연대가 공존하는 동덕

자치예산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자치적 행동그룹들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하겠습니다.
소통과 논쟁! 정보의 교통망을 cyber공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펼쳐내겠습니다.
수혜받는 복지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의 이름으로 복지를 명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 비가시적 폭력에 대항하여 '인간다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업주의적이고 비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학사개혁안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비민주적이고, 집단 훈육의 교육을 중심에두는 학사개혁안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21C 문명을 주도할 새로운 통합학문,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

3. 새로운 여성성의 창출과 생성된 여성주의가 분출하는 곳으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대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학 센터는 여성주의 모델로 거듭 나아가며 여성학 도서관은 여성주의 정보뱅크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여성학 위원회 건설하고 그속에서 동덕의 여성학 강의를 준비합니다.
반여성적 여성학 강의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절'의 꿈! 그 '생성'의 실천마력은 3대 반역과 자성의 직접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행동테제

'단절'의 꿈! 그 '생성'의 실천마력은 3대 반역과 자성의 직접행동으로 표출됩니다.

4. 생태친화적 환경을 위하여

최악의 반환경기업인 한국전력의 에너지 독점을 반대하며, 한전해체를 주장합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모든 피해와 대가를 민중에게 전가해온 보수재벌의 반생태적 반민주적 환경정책을 비판합니다.
환경현장활동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확장시켜 냅니다.
생태친화적인 동덕캠퍼스를 위해 일상속의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환경운동단위에 대한 지원'을 해갑니다.

5. 한반도의 반전평화와 인권을 위한 동덕인의 행동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연대를 위한 실천을 합니다.
대북 대인지피 전면금지 등 미, 남, 북한의 군비감축, 평화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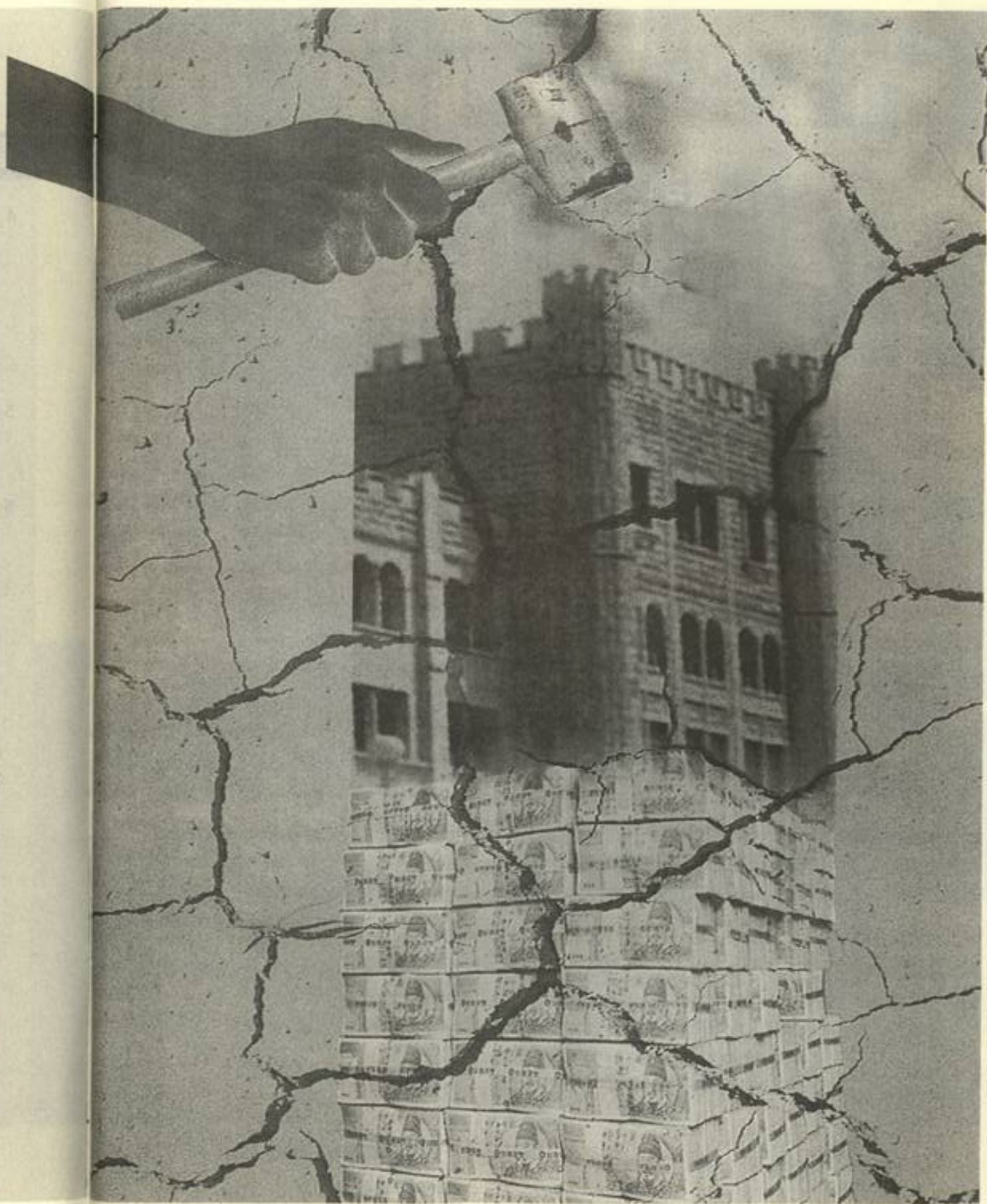
6.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행동

고용불안을 불러오는 경제위기론에 맞서 '노동권'을 옹호해 갑니다.
빈민,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인적인 생존권 탄압에 반대합니다.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안기부 및 국가보안법과 같은 모든 반민주 악법을 처벌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유린에 반대합니다.



2

단절의 꿈,
그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동덕의 어법



처음 타본 반역의 타임머신

새내기 새로배움터. "너희들에게 자치란 없다!!" 학생회는 어적단체?

갑질 켄 희망들의 미래찾기 의 이름으로 진행된 새터!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노고(너희들에게 자치란 없다!!) 학생회는 어적단체)
로 새터는 산산히 조각이 날뻔했지만,
동덕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은 결국 그것을 저지하였다.
돌리는 소문으로는 이날 천화국과 우체국이 무지바쳤다고 한다.

환경미화!! 대자보는 간데없고 편백만 나부껴--

최소한의 알권리가 처참히 짓밟힌 그날 오후,
갈기갈기 찢겨 나부끼는 대자보는 동덕학우들의 일곱어진 권리를 대변했다.
알고보니 그날은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학교를 순시하는 날이라고 한다.
올림픽때 정부에서 노관상을 철거하듯이...

인어공주는 너무 예뻐다. 그러나 장님??

어느날부터 라디오 CF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날부터 지하철 4호선을 예쁘게 장식한 동덕 광고
그러나, 인문관, 과학관, 대학원의 도서관 공주가 사는 성엔 온풍기 하나 없다!!
新왕조 몰락

가족잔치래! 동덕? 잔치는 끝났다.

5월 어느날 오후, 학교가 텅비었다.
아직도 자리를 메꿀사람이 없나보다. 학점의 노예들의 처절한 모습..... 눈물이 나온다.
가족 잔치는 끝나고 남은 것은.....? 경품??

겉이 바뀐다고... 속이 바뀌나요?

한복을 입고 들어오면, 교육이 바뀐다!!
TV와 잡지가 떠돌아다니다. 동덕의 교수님들이 한복을 입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나 나는 한복속의 종이풍치를 보고야 말았다.
알고보니 그것은 10년이 넘은 빛바랜 연구노트!!

M TV가 휴게실예?

휴게실에 TV가 생겼다 잠시도 쉬지않고, 화려한 화면의 속도는 가득이나 산란한 가슴을 답답하게만한다.
학회 세미나가 있었다.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려고 휴게실 TV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답은 간단했다.
"그것은 학교거야. 총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해"
학교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보는 방법을 꿈꿔보았다. 휴게실 TV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혼은 공동관리, 자치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학부제!! 어거 비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교수님의 강의도중 학부제란 말이 튀어나왔다.
교수님은 동덕의 교육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학생曰 "어떻게 진행되지요?" 교수曰 "아직 공개할 수 없어!! 이젠 98학번을 위한 히트 상품이거든!!"
덕성여대도 철회하기로 한 학부제, 서울대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부제, 동덕인은 마루타!!!

여성특화대학?

여성학 연구소에서 학술세미나가 진행중이다. 모과 어느 교수님이 사회 보면서 이런판공을 하셨다. "여성
들도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곤 여자들이
기 때문에는 덧붙이셨다. 능력만 기르면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까? 그도 여자인데.....

육아와 자녀교육, 결혼과 가정의 동덕이 말하는 여성상이라구?

예구예구 생활관 실습시간이다. 한복을 입고 하루종일 차파르는 법, 절하는 법 그외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우느라 다리가 저려온다. 국내 최초의 여성학 연구센터!! 국내 최대의 가정의례 준칙학교!! 新조
선왕조 이곳에 오면 가르쳐 드립니다.

학생회를 새로이 '생성' 하는 반역의 지성의 '실천미학'



학생회의 존재자체가 희미해졌다.

어떤 이들은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학생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학생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이 바뀌면 해결될 문제라고....

그래서 간부들이 혁신하여 학생운동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간부들의 혁신의 중심은 간부교양지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더욱더 열심히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은 것.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학생회를 중심으로 외화시키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요구는 설문적업과 설문작업을 분석해서 공개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절의 꿈’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생성을 갈망한다. 학생회의 위기는 간부교양지가 없어서의 문제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설문작업을 분석해서 공개하는 과정이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민주주의의 방식의 문제이다. 총학생회의 입장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소통과 논쟁의 과정 혹은 장의 확보의 문제이다. 대부분 총학생회를 평가할 때, 강변만하는, 독점적인구조를 평가하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제라는 제도자체가 가지는 민주성의 한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우들과 학생회간의 쌍방향적인 교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를 통한 논쟁과 민주주의의 확보라 하겠다. 총학생회든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든 자신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의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학우대중 스스로의 직접 행동, 바로 그것이다.

1. 동덕학생사회 진단.

훈육과 복종의 일상화

교직원과 교수님에 의해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무산된 이래로, 동덕가족잔치를 비롯한 각종학술제와 학교주제 행사 때에는 학우들을 동원을 위한 물리력이상 보지 않는 교수들... 때 순간순간 모든 동덕인들은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저 거대한 마법의 성으로부터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다. 학우들은 일상속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학교에 길들여지는 훈육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이 되고만다. 지난번 동덕 가족잔

치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 논문을 발표한다는 호들갑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데 성적이라는 미끼는 여전히 동덕인들에게 유용한 기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한다.

논쟁이 사라진 학생사회

총학생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자보도 선전물도 붙이지 않는 사회가 동덕의 학생사회다. 그나마 학기 초에는 단대학생회를 비롯해서 곳곳에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 동덕의 학생사회는 총학생회의 위치상에서 당위적으로 써내는 몇장의 대자보를 제외하고는 쟁점이 불거져나오는 것이 있을 지라도 쉽사리 논쟁을 한 다거나 입장을 펼치려서 대중적인 공유와 행동을 모아내려는 움직임이 결코없다.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략한 입장만이라도 말이다.

지난 9월 퀴어영화제가 무산되고 순회공연을 중 동덕의 대동제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논쟁과 논의는 여성행동위와 영화행동위, 여성학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덕의 학우들의 관심의 촉각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것은 총학생회가 알리지 않아서 선전이 미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질적인 입장과 입장과의 일상화된 논쟁이 동덕내에서 사그라들었기 때문이고, 논쟁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익숙해진 탓일 수도 있겠다. 보건관리학과 2학년 조인트 MT 성폭력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대자보로 나갔을 때 역시나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다는 하나의 가십거리 정도로 이해되고 말았다. 한총련 탈퇴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논쟁의 복원!! 대중적인 교통과 논쟁의 과정은 학생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총학생회가 굳이 제안하지 않을지라도 학원내의 누군가가 쟁점을 형성하면 그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논의는 동덕학생사회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유형과 방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학생회는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학생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불만과 짜증은 저항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어느새부터 학생회로의 불만으로 터져나온다. 예를들어 식당 음식의 질의 문제는 학우들이 제기해야 하는 문제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회가 복지부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밥의 질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학우들의 복지에 대하여 생각조차하고 있지 않는 학교당국이 문제인가?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학교에 대한 불만보다 더 심하게 작동되는 원인은 학생회제도의 대의제에 의한 길들여진 폭력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자신의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직접행동, 직접제기로 가능한 것이다.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직접적인 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당국에 대항하는 저항의 행동까지도 말이다.

2. 동덕학생사회 재구성, 그 대안의 행동들을 시작한다.

소통과 논쟁의 민주주의

기간의 학생회는 학우들과의 소통과 교통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소통의 과정이었을 뿐 학우들과 함께 논쟁되고, 공유되는 과정은 거듭거듭 단절을 반복해왔습니다. 소통의 구조는 단순히 설문지를 통해서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 논쟁하고 대중적인 쟁점들을 논쟁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집니다.

실천공약

현재의 쟁점으로 논쟁을 기획한다!

현재의 쟁점으로 논쟁을 기획한다!

총학생회는 모든 정보를 학생사회에 성실히 공개하고, 동덕인의 쌍방교류를 위한 모든 기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망과 각종의 매체를 통해 매 시기의 학내 정치적 쟁점을 잡아내고, 이를 예각화시켜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사회로 피드백시켜내는 일련의 과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동덕 총학생회는 이런 논쟁의 사이클을 통해 동덕학생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 시기시기마다 끊임없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1대 총학생회는 모든 학우들과의 교통과 소통망을 Cyber속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이제,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활동 성과들은 정보연대 SING으로 들어와 동덕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동덕 정보 BANK 000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Cyber 민주주의가 이제 동덕에서 시작됩니다.

DDWUF, 공간에서 총학생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로 자치적인 활동을 벌여내는 행동그룹들에 대한 보장을 통한

'차이와 연대'의 정치 : '자치예산제' 실시

동덕에는 여성, 환경, 교육, 영화, 민중연대 행동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운동단위 그리고 여러 대중운동 단위가 존재합니다. 기간 총학생회에서는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장을 공간과 예산에 대한 보장이었지만, 실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후원의 형태로 총학생회의 지원의 방식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적이며, 자치적인 활동에 대한 침해 혹은 개입의 형태로 총학생회가 놓였습니다. 31대 총학생회에서는 전학대회를 통해 총학생회 예산안에서 행동그룹들에 대한 예산을 확정적으로 채택하고, 그것은 행동그룹들의 자치예산제를 통해 관리되고, 더불어 이들의 행동을 보장합니다.

자치의 이름으로 복지를 명명한다.

1. 이제 동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내 휴게실의 TV를 비롯한 모든 기자재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학회, 소모임, 동아리 그리고 모든 학우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이제 인터넷은 대학원에서 할 수 있다.

승인관에 학생식당이 생기면서 대학원의 학생식당은 빈공간이 됩니다. 그 빈공간을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제 그곳을 자치의 이름으로 바꾸어 봅시다. 설 수 있으면서, 간단하게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면서 한쪽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이용료는 무료고, 차와 음료의 수익금은 복지장학금으로 환원하면서 그곳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3. 새로운 문화의 수원지, 휴식의 중심지를 휴게실의 MODEN화로 만들어 냅시다.

도서관, 대학원, 학생관 휴게실의 비효율적 활용에 동덕인의 이름으로 Anti를 겁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자 및 테이블을 개조하여 좀더 편안히 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그곳은 동덕의 학회, 소모임 그리고 작은 공연을 하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휴게실을 휴게실로가 아니라, 문화의 수원지로 만들어 봅시다.



비가시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인간다움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업주의가 낳은 20세기 말의 웃지못할 코미디

대학이 살아남아야 하는 증거: 돈이 남아야지
대학이 살아남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입생 유치
동덕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자대학



세계화·정보화·지식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하게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교육개혁의 바람은 동덕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의 문제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지 못하는데 있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21C 최첨단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나갈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덕기업은 어떻게 살아남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고 이대로 나가다간 대학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교육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서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동덕대학의 딜레마는 결국 상업주의를 선택하고 마는 20c말의 코미디를 낳고 말았다.

여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특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조용하는 전문인력을 어떠한 주제와 내용의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두가지를 효과적으로 바꾸어내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학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신입생 유치의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속에서 동덕이 선택한 그 첫 번째는 여자 대학이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떨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 캐리어우먼이라는 이미지로 상품의 전략을 탈바꿈하기 위한 홍보전략이자, 신입생유치전략의 하나로 여성 특화대학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있는 전문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속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전산, 디자인, 공연예술 더불어 실용적 지식으로의 어학, 자질구레한 지식을 갖추기 위한 컴퓨터, 실용영어와 같은 능력개발 특별과정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를 유행하고 있는 지극히 실용적 지식을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상업성에 찌들어 교육이 무엇을 중심에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조차 없이 현재 대학 당국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이 교육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똑바로 보면 문제가 보인다.

실용주의 기술중심대학으로의 상업성을 표방하면서 각종 메스컴과 광고속에 동덕은 알려지고 있다. 얼마전 디자인대학에 프랑스 디자인 학교 교장이 방문했다. 몇일동안의 강의와 학생들의 출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었다. "손재주는 좋은데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조잡하다." 상상력이 결여된 교육!!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반전과 역행 그리고 새로운 융화와 분출의 가능성, 창조의 가능성은 다름 아닌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환경과 교육적 경

험의 다양성속에서 확보될 수 있다.

프랑스 교장은 현재 동덕의 교육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조잡한 기교만 늘어나고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모방하는 것은 손색이 없으나 본질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의 가능성 발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에 탈을 쓴 상업주의 교육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제한없는 상상력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며, 인간관계의 고립성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현실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는 더더욱 동덕의 교육이 획일적이고, 상업적이며, 실용주의 기술중심이 될 것이다. 인문대는 인문학이 없어지고, 어과만이 남는다. 어학을 하면서 필요한 각 나라의 사상, 철학, 민속학, 지역학, 역사에 대한 이해없이 그냥 조아리면 된다. 외국어를 입에 달고 다니면 그것으로 전공을 OK가 된다. 교양과목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영어, 컴퓨터, 사회봉사도 대신하게 된다. 학부제의 형태는 학문과 학문사이의 열린가능성을 찾는 예를 들면 인간복제와 인과사의 문제를 해명할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윤리학과 의학을 접목하면서 개척하는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 동덕은 단순히 학과를 모아놓고 강사비의 절감과 강의실의 절약을 중점적으로 효율성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동덕의 교육대로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잘 질들여질 것인가, 가 문제이고, 실용적 어학과 컴퓨터 이외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은 결박되어 결국 영화 '테러리선'에서와 같이 문명과 기술은 더욱더 발전되었지만, 사고와 비판이 결여된 기계인간들이 사는 사회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명의 오염물을 대량양성하고자 하는 동덕의 교육에 제기를 하며, 창조와 생명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학문과 사상의 변증법의 교육으로 다시 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반 교육적 학사개혁안은 전면철회 되어야 합니다.
2. 동덕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이제 대중적 논의와 대중적 발언으로 본격화 되어야 합니다.
3. 실용학문이라는 겹질을 쓰고 상업주의 기술중심대학으로 나가고 있는 동덕의 교육이념은 대박본연의 중심적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4. 여성학의 관장부처는 반드시 여성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학은 단순히 학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아주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문제와 가부장제의 상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실종된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양학부의 새로운 편성을 요구하며, 단순히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동덕이 학부제를 시행 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1. 단절의 꿈이 분출하고, 그 생성의 힘으로 사회를 밀어갈 수 있는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이념을 구성해야 합니다.

창조와 여성전문인은 인간다움의 가치, 창조적인 그러한 창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상력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상상력은 다양한 경험과 이질적이고 상이한 학문과 학문사이의 새로운 학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를 기능인 양성으로 한정짓고 있는 교육이념과 단절해야 합니다.

- 인문학에 대한 경시와 상업주의적인 교육내용의 구성과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 각각의 전공학부는 진보적인 학문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공학부와 동등한 위상의 교양학부를 전공학부별로 둡니다. 이를 통해 간 학문적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진보적인 학문연구의 과정에 참여야 합니다.
- 강의교수와 연구교수 순환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비약을 폐하고,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학문의 진지로 대학은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대학의 교수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것은 일면 당연한 그들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의 사회적 변화속에서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한 연구의 과정은 반드시 참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현재까지의 학문이 사회속에서 조화가능한가 혹은 조화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연구자제도 종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교수업적평가제라는 제도의 틀에서 종속적인 형식적 연구논문만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현실에 깊이있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양과목은 통합학문의 문제의식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교양학부와 교직학부, 여성학학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양학부의 경우 지금과 같이 사회과학, 철학, 자연과학등의 군으로 편성된 것들을 전공학부와의 관계속에서 전공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구축하면서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학부의 학문편성에 따라 교양학부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학사개혁안에서 말하는 전공학부와 교양학부와의 관계

2~4학년	전공심화과정
1학년	전공필수과목
교양과정: 전공과 별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됨	
교직과정: 부전공으로 이수	
여성학: 부전공, 복수전공이 가능, 3학년까지 가능	

우리가 주장하는 전공학부와 교양학부와의 관계

3~4학년	전공심화과정
1~2학년	교양학부과정
교양학부를 전공학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놓아둠.	
여성학은 4학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야 함.	

- 외국어학부로의 재편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하고, 학생·대학원생·교수·강사들과 함께 진정한 새로운 학문으로써의 열린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외국어전공학부와 외국어 전공학부 내의 교양학부 모델

전공학부	서양어학부(영문, 독문, 불문)	동양어학부(국문, 일문, 중문)
교양학부	유럽의 민속학, 역사, 철학, 문학, 언어학 불문: 프랑스 예술사	동양의 사상, 지역학, 아시아문화관... 언어의 현재
교양특화	독문: 독일의 법제, 음악 영문: 영국과 미국의 역사	국문: 근현대사 일문: 중문:

- 아간 교육의 정상화는 차이를 차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이상이 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상황속에서는 야간학우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주간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야간교육속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지점을 교육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야간교육의 핵심테제

...주간에서 배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되 야간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지점

전공학부	주간과 동일하게 구성
교양학부	주간과 동일하게 구성되는 한측면과 산업체 학우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학	여성과 노동, 여성과 법률, 여성과 문화... 성폭력 대처

- 동덕 VISION 21 : 디자인, 전산정보, 여성학, 공연예술대학

동덕의 VISION21은 디자인, 전산정보, 여성학, 공연예술대학이 발휘하는 상품성에 있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다. 이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설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통합학문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학문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과목이라는 측면에 한정되어서 구성되어서는 안됩니다.

- 교육주체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름의 목소리, 이제 우리의 자궁을 노래하자!

사람들은 자궁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자궁에 대한 의미는 없는 왜 하나의 현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궁을 생명을 잉태하는
승고함과 창조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것에 가리워진 승고함과 창조성을
노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러한 자궁이 있다.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크리한 자궁을 노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의 시작은 여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울려 퍼질 것이다.



1.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있어도, 단 한번도 여성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흔하게 회자되는 말로 '음양의 조화'를 만물의 이치라고들 한다. 그래서 양이 없는 이 공간을 음의 기가 센 곳으로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이미 '음양의 조화'라는 말 속에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양' 하면 밝고, 따뜻하고, 힘이있고, 그리고 지향되어야 할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반면에 '음' 하면 어둡고, 차고, 지양해야 될 것으로 간주

되며, 이러한 것은 '양'이 '남성'을 대표하고, '음'은 여성을 대표한다는 사회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은 '남성'으로, 열등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은 '여성'으로 표상되며, 또한 '남성적인 것'의 요소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며, '여성적인 것'의 요소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현재 사회가 성억압, 불평등의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억압, 불평등한 현실을 공고화하기 위한 성통제 방식은 근대자본주의가 안착화되는 시기에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성적차이나 인종간의 차이 등 '차이'의 문제설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 정치이데올로기는 차이를 억압하고 차별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시켜내고, 사물을 보는 모든 방식에서 위계화된 이분법적 논리를 사회적 가치체제로 확립한다. 그리하여 생식의 기능으로만 일컬었던 성은 근대를 기점으로 하여 또 다른 형태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대의 공사분리 즉, 이분법 논리와 결합되어 드러나게 된다. 근대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라는 문제들은 정치 = 공적영역 = 남성 = 생계부양자라는 등식과 성 = 사적영역 = 가정 = 여성이라는 등식을 확립시켰다. 중요한 것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대립쌍이 아니라, 공적영역의 중심자대로 규정되어지는 사적영역과 거기에 개입되는 우월과 열등의 이분법적인 논리이다. 공적영역은 우월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확립되고, 사적영역은 덜 완성되고 어딘가 부족한 열등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것은 우월한 공적영역의 상징으로써의 남성을 중심으로하여 열등한 사적영역의 담당자로 여성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즉 여성의 존재는 중심 (= 남성)을 중심답게 하기 위한 주변적 존재로 위치짓고, 남성적 시각에 의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근대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잉여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여성노동을 미숙련/저임금종 주변화된 노동으로 위치시켜내고, 평온과 안락이 넘치는 가정의 수호자로의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라는 여성의 성역할을 훈육하는 가족이데올로기의 구축을 통해서 여성억압의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주변적이고, 열등한 존재로써 가정의 수호자 역할을 하여야만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성억압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써 가족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성을 종속된 주체로 재생산하고자 남성에 의해 규정된 여성정체성을 주입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훈육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 스스로 남성적 가치의 우월성을 내면화하도록 확립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성억압, 불평등에 끊임없이 우리를 순응하게 하는 상징폭력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망각할 것에 감염되어 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있어도 여성의 역사는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2. 대안적 다름의 정치 - 새로운 여성성을 창출하자!

성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시켜내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현실을 거부하는 것! 남성적 시각을 전제로 한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정체성을 혼용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은 시작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여성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었고, 단지 지배적인 남성권력에 의해 규정된 여성정체성에 길들여져왔을 뿐이다. 남성에 의해 형성된 여성정체성의 하나의 예로 프로이트의 성담론을 들 수 있다. 유년기 남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프로이트의 설명에는 팔루스와 거세 콤플렉스가 주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에게 남녀 성기의 다름은 차이로 인식되지 않고 거세의 관점에서 비춰진다. 또 그에게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페니스의 결여)은 오로지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삶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세된 것으로 그리니 프로이트적 발상은 현재 우리사회의 지배적 성담론이다. 이는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진 차이가 제대로 상징화되지도, 충분히 인정되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남녀의 존재론적인 차이가 남성의 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성을 결여된 것으로 인식시키면서 여성은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사회적 존재로 위치시켜내고, 여성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사회적인 가치체제로 정당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그러지고 왜곡된 여성성의 묘사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폭력의 현실일 뿐이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적이 폭력의 현실에서 여성이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문화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여성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존재론적 차이의 인정을 기초로 한 여성 스스로의 여성정체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남성에 의해 파괴된 여성정체성을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여성적 연대로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대안적 다름의 정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여성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속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동안 가치절하되었던 여성적가치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3.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여성특화대학???

그러나 우리의 대안적 행동을 실현할 우리의 공간은 어떠한가? 성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여대의 위치는 사회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일맥상통한다. 여성의 정체성이 언제나 남성적 가치에 의해 혼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지배의 생활양식을 혼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대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대라는 공간 또한 독립된 여성문화 공간으로써의 상징성은 탈각되어 있다. 남성중심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우리의 공간안에서도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즉 만물의 이치인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기에 이곳에 있는 몸들은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좋은 양파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남성적 가치들을 내면화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답과 갈등이 없는 '조화로움'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조

화로움이 이미 중심된 것이 있고, 그 중심을 중심답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변이 존재하여야하는 '조화로움'이라면 그것은 '조화로움'이 아니라, 불평등함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허울을 조장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여성특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동덕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

현재의 여성특화대학, 그것의 중심은 '여성'이 아니라 '특화'이다.

학교측은 모든 부분이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동덕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이고, 그것이 바로 특화대학이라고 한다. 각 대학의 살아남기 경쟁 수행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대의 경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성특화대학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실제 상명여대의 경우 96년부터 상명대로 전환하였고, 성신여대는 95년 카톨릭 대학과 통합을 하였고, 현재 존재하는 몇 개의 여대의 경우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성 특화 대학을 표방하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고화와 국내최초 여성학 연구소의 출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2천년대 여대의 경쟁력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수요자의 여대생 기피의 현실의 다름아닌 말이다. 즉 여대생의 취업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주변화 되고 있는 사실속에서 사회적으로 공고화 되고 있는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크고 작은 여성에 대한 편견들로 인해 여성의 취업은 불안정과 주변화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대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고하라는 것은 실제 가능한 이야기 인가? 그러나 학교측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것의 실체는 여성특화대학이라는 것 속에서 여성이 중심이 아니라 '특화'가 중심인 것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문, 사회, 자연계열은 배제시키고, 경쟁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전산정보와 디자인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품적 가치가 높은 전산정보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특화대학인 것이다. 여성특화대학의 교육의 방향성은 여성교육이 아니라 상품적 가치에 중심을 둔 '특화' 속에서 전체 동덕여성이 중심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동덕여성이 중심인 것이다. 여성특화대학내에서 여성의 서열이 존재하고, 절대다수의 여성이 배제되는 여성 특화 대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의 이념이 존재하고, 그 여성교육의 이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성 특화대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당한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학 센터! 화려한 잔치는 끝났다.

"국내 최고의 여성교육의 전당, 동덕여자 대학교"를 지향하는 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여성학연

구센터에 대한 건립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국내최초라는 여성학 연구센터의 실내용은 여성학 도서관, 여성학 박물관, 여성학 연구소이다. 여성학 도서관의 경우 95년도 신문지상에 공개된 것처럼 국내최초의 여성학 전문 도서관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여성학 연구소와 여성학 박물관의 핵심은 남성적 시각에 규정된 '여성다움의 여성'을 기르기 위한 여성교육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여성학 전문 도서관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책중에는 "멋진 남성은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여성을 주변적인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남성적 가치들을 주입하는 책들이 과연 여성학 전문 도서관에 위치할 수 있는 도서들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여성학 연구 중심대학이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여성학 연구소는 또한 어떠한가? 자문위원들로 국민회의 신낙균, 신한국당 정세화, 이해정 여성신문사장, 민주당 이미경, 장명숙씨등과 여성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도 않는 교수들이 상임 연구원으로 존재하고, 여성학 박물관은 무엇을 전시할 수 있을까?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최초의 억압을 여성억압이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시하겠다는 것인가? 그리하여 여성이 좀 더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여성여성특화 대학이라고 명명하기 위한 여성학 센터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의 실체이다. 즉 여성교육에 대한 이념과 관점이 부재한채, 자구책으로 설정된 여성특화 대학은 동덕이라는 이름앞에 새로운 상표를 하나 더 붙이기 위해 여성학 센터를 건립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여성을 소외의 역사로 내몰면서.

국내 1위! 여성학 강의... 그러나 아무도 1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사회에서 1위를 자랑하는 13과목의 여성학강좌 그러나 아무도 1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강의를 듣는 우리조차도... 여성특화대학이라는 이름처럼 현재 동덕에서 여성학 강의는 13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여타의 다른 학교에서 여성학 강의자체가 없거나 혹은 3-4개 정도로 개설되는 현실을 볼때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이러한 고무적인 현실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성학 강의외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교양 1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통시적인 접근인 반면에 여성교양 2는 공간성이 깊은 공시적인 접근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영역에 선정된 과목들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임의적인 것들이다. 여성교양1의 경우 반드시 성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결혼과 가정으로, 그리고 자식과 육아로 나아가 댄나중에는 노후와 복지로 진행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렇게 배열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 합의라는 일종의 재관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덕 여성 연구 참관호 中 『교양과정으로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중

여성특화대학을 표방하면서 한국 대학사회 최고의 13과목의 여성학강의를 개설해 놓았지만 여성학 강의의 개설이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임의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학교당국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임의적이고, 비체계적은 부분을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는 장치 마련 속에서 전환시켜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학 강의를 어떠한 관점과 교육이념으로 개설하였으

나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측은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것하에서 여성학 강의를 상정하고 있다. 현재 사회가 성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남성적인 가치와 사고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혼용되면서 지배적인 인식으로 현실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가치를 뜻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여성특화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강의의 교육이념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교양1의 경우 성과 사랑에서, 사랑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자녀교육으로, 노후와 복지로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인과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대체적인 합의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학교측은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남성중심의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가치와 사고를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교양 1의 경우 전통적인(남성적인 가치)성별분업 속에서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억압의 상징폭력으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은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위치하는 인간으로 규정 하였고, 가사노동이나 육아가 여성 본연의 임무로 각인되게끔 한다. 여성은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로서 존재하는데 딸은 예비아내 또는 예비 어머니로서 결혼할 배우자만을 찾고 있는 목이 긴 여인이 되어 버리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두를 바칠 것을 강요당하며 바다처럼 넓은 모성애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유린당한 자신의 삶을 위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의 불평등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억압성을 은폐하여 장미빛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여성의 임무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가정의 수호자로 각인하게끔 하는 반여성적 여성학 강의는 폐강 되어야 하며, 새로운 강의 내용으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평생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성비용의 사회화를 다룰 수 있는 강의내용이 이루어 진다면, 여성의 임신, 출산은 사회를 유지시켜내는 사회 재생산적 노동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보장(여성의 임신, 출산 휴가 확보, 여성의 생리휴가 유급화등)이 될 수 있으며, 자녀양육의 공동육아 방안, 비영리 탁아시설의(지역, 직장 등의 범사회적인 확대)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4. 여성에 의한 여성성의 창출과 생성된 여성주의가 분출하는 곳, 이것이 바로 여성특화대학이다.

사회생활의 여러관계를 규정해주는 지침으로서의 규범, 믿음체계, 상징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을 통틀어 '문화'라고 한다면 현재가 성별위계화된 질서로 인해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 우선적인, 동시에 남성 우월성과 여성 억압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지배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성들은 남성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자신들에 의한 남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시켰지만 여성은 사회 어디서든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간의 관계를 확보하며 여성정체성을 만들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실천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의 확보와 여성문화의 창출로 생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적인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궁이라는 것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 못한 것처럼, 모든 여성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상징화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자궁은 육체적인 자궁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잉태할 수 있는 숭고함과 창조성을 지닌 정신적인 자궁까지, 그러한 것이 바

로 여성적인 것이라고 노래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자궁을 노래하자.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제 여성들간의 자율적 연대로 구성되는 여성정체성을 위한, 그리고 대안적 다름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우리의 공간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남성적 가치들이 혼용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구성하는 새로운 정체성,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정체성으로 여성임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적인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대학으로!

창조적인 여성을 교육한다는 것과 당당한 여성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할 지 몰라도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당당한 여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성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성을 극복하는 주체들을 일컫는 것이다. 창조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인지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토익점수가 900을 육박하고 4.0의 학점을 취득하여도 결국 취업박람회에서 듣는 소리는 여성분들은 행사장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구조가 보장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을 중심으로 상징화된 이데올로기를 즉 남성우위의 구조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변화하여 남성 단독에 의해 사회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들에 의한 새로운 여성성을 창출하고 그에 적합한 문화와 운영원리로 사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과 남성들을 위해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되던 여성에서 시장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유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성특화대학은 여성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이념과 그것을 실현시켜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성주의 산실이 바로 여성특화대학인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여성학 센터는 여성주의의 모태로!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의 모태로 여성학 센터는 고정되지 않은, 그래서 가장 기능적이기도 한 곳이며, 여성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해석되고, 생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문화 속에서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과 비교할 때 종속적이고 부정적이고 굴욕적인 형태로 상징화 된다. 여성적인 것은 비가시적인 것으로서 억제되는 데서 오는 문화적 결핍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욕구는 여성 자아의 경험과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매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의 여성성의 소망, 욕구, 내적 갈등 그리고 위기감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는 것도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은채 여성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들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함께 사고하는 곳입니다. '해방'이 더 되고, 덜 되고의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의 능력과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차와 여성 개별적 특수성의 차이에 대한 사고를 해방의 동인으로 인식토록 하는 일이 이 '여성주의의 모태'의 취지입니다"

여성학 도서관 - 여성주의 정보뱅크 센터로!

무분별한 도서 확충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서들이 확충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공간이 아니라 해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학 도서관은 도서관만을 배열한 것에 그치고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형태로 전화하여 정보뱅크의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실과 분리된 도서들의 배치들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현실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여성주의 정보뱅크 센터는 동덕에 재학중인 학생과 졸업한 사람에게 평생 이용권을 배부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 전문적인 여성학 정보센터
 - 현재에서 좀 더 전문적인 도서 분류와 여성의 sexuality에 관한 도서 확충 공간으로!
- 억압의 현실에서 해방의 미래를 위한 정보센터
 - 취업시 또는 직장내 성차별,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과 노동과 법 관련한 정보공간을 위한 여성 단체 소식지, 법관련한 도서와 상담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센터 건설
 - 96%의 여대생들이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느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과 함께 비밀비해 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인권 확보를 위한 신고 및 상담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여성학 연구소 - 여성학 위원회

여성학은 다른 학문분야와는 다르게 실천적 관심, 즉 여성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사회 제 문제들을 고찰해보고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실천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고 학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과 여성학은 그 길을 함께 걸어왔다. 즉 실천과 결부되지 않는 여성학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성이 받는 남성과의 차별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성을 성찰해 보며 사회화된 여성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준다는 것이다. '사회화된 여성성의 성찰'이란 여성으로 자라온 삶과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 보고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학 강의는 여성들의 일상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상호적인 성차별과 여성억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 여성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여성학 위원회 건설 -
여성학 강의의 체계적이고, 여성해방적인 강의권의 확보를 위해!
- 여성학 수업은 여성학과 출신의 강사로!



3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위해
생성의 정치로 역사를 밀어간다



대학 문화운동

자유와 평등을 향한 만인의 연대를 위하여...

당신의 혁명적 예술작품을 그들의 은행에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상파괴적이거나 실험적인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예술은 혁명적 정치운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 그 자체만으로 합병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관념적인가! 전유의 문제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지 문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시대에 누가 이기는가 하는 문제이다.

-테리 이글턴

문화의 정치, 주류질서의 전복자

'문화'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광범위하며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문화'라는 고민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는 쉽게 락공연이나 영화제와 같은 대중 예술 공간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며, 다른 이는 '도서관문화' '동아리활동'과 같은 대학 속에서의 일정한 삶의 패턴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잠복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은 너무나 '평온과 고요의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 같다.

과연 여기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대중문화가 마치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가며 계절이 바뀌듯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그 무엇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좀 조악할지는 모르나, 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라는 재료를 들쭉 뭉친 위에다 '저항이데올로기'라는 재료를 취합해 놓은 그릇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합된 재료들이 이루어내는 음식의 맛을 사람들은 '헤게모니'라고 흔히 부른다.

하지만 헤게모니는 지배자의 것이다. 당신은 수많은 국가장치와 자본과 매체와 제도교육이 흡수처럼 쏟아내는 지배의 언어들 속에 포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로부터의 '탈출노력'도 가능하다. 이제 그 '헤게모니'의 각축장(角逐場) 속에 어떤 식으로든 발들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 어느곳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미 말한대로 모든 문화는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동시에 너무나도 집정 정치적인 체 한다. 전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전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평화할 수 없는 '문화', 특히 대학사회에서의 '문화'의 의미들



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화의 정치학"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대항담론에서 대중담론으로: '대학문화'가 걸어온 길

대학문화는 물론 대학 속의 대중문화이며, 대중문화와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대학문화에서 '가능성', '실험'을 찾으려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문화의 가능성이 단순히 '대학', '젊음'에서 찾을 수 있는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학문화의 가능성은 바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세대적 감수성'이라는 비교적 큰 공감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역동적인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대학은 탈출과 민중극, 풍물 등에서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적 민족문화"의 메카였다. 그러나 문화는 민족주의 담론의 하위범주로서 생각되었고, 학생기구의 문화정책은 한총련 운동의 '부문계열운동'으로 매우 일사불란하게 펼쳐졌다.

이에 반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대담론적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실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대학은 다양하게 제기되는 사회모순들과 함께 자생적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노찾사와 꽃다지가 대중화되고, 서태지, 패닉, 천지인, 메이데이, 플래쉬, 윤도현에 이르기까지 '얼터너티브 락'이니, '갱스터 락'이니 하는 장르들이 '저항문화'의 전형으로 각광받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공간의 정치경제화, 여성주의적 생활양식, 포스트구조주의 담론들, 생태친화적이고 순환적인 일상들은 기존의 문화운동이 가진 편협한 시야를 넓혀주었고 문화강화는 붓물을 이루었다. 이제 분명 대학은 실험공간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문화를 낙관할 수는 없다. 대학 속에서의 국지적인 문화혁명의 한편에서 '지배문화'는 매체와 예술작품들을 통해 '바이너'들을 차례로 오버그라운드로 통합시키면서 대학사회를 잠식하였고 허름하던 대학가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대학인들의 일상과 맞물려 상업주의의 일로를 걸으면서 화려한 자본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대중문화는 '지배의 가치와 양식'이 두드러지게 관철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대중공간에 대학문화의

등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대중문화로부터 민중문화, 저항문화를 구분하고 혁명적이거나 민중적이라고 생각되면 마구 '살포' 해버리는 무모함은 가장 위험한 대중문화담론이다.

근래의 대학사회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지적은 대단히 유효하다.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소위 '문화 공약' 들을 보면 왜 이러한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중적 자부심, 자존심을 문화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토대의 생산 권리가 대중에게로 향해야 한다"



"소설의 고리끼, 시의 마야코프스키, 영화의 에이젠슈타인... 시의 임화, 소설의 박태원, 음악의 김순남, 영화의 김유영... 그리고 대학인!"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서 과연 '대학문화'가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에게 있어 어떠한 것이었는가하는 인식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왜 자신의 기호까지 남에 의

해서 제단되어야 하며, 왜 대학문화에 있어서 외래문화는 창조적이라 하더라도 '민중적 자부심' 때문에 배제되어야 하며, 왜 대중예술 작품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냄새가 풍기면 일단 쌍수 들고 나서서 환영해야 하는가? 이러한 지독한 문화적 편식은 이미 소비적이고 수동적인 일상에 환멸을 느끼는 대학인들을 오히려 탈정치적인 존재로 소외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예술작품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인위적인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며, 대중들의 분출되는 욕망들을 배제시키기만 한다면 대학인들은 구태여 자신의 문화들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를 혁명적으로 고양시켰다는 약간의 자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화를 대중으로부터 이반시켰다는 더 큰 자괴감을 뿌리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민중주의적' 대학문화론들은 '아래로부터의 문화담론'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바다로부터 격리된 대학문화는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

락과 흑인음악의 수입은 과연 '문화혁명'이었나?

물론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문화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바로 펑크와 얼트 등의 락음악, 레게와 랩 등 소위 흑인음악 장르들에서 저항적

주체성을 발견하면서 다분히 국수주의적이었던 대학 문화운동의 정체상태를 정면돌파한 최근 대학문화운동의 업적(?)일 것이다. 몇년전의 연세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좌파학생운동진영과 스타급 음악평론가들이 전도사를 자처하며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던 이 락음악과 흑인음악의 '저항성 부각 작업'은, 대중문화사자들이 이 장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붐을 하나의 '세대적 현상'으로 기록할만큼 분명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쉽게도 이 '문화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장르를 통해 지배질서 전복의 가능성을 열어내겠다는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중들은 아랑곳않고 '향유'하는데에만 치중하였으며, 창작자들도 그러한 대중정서에 적극 '부응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 적어도 이제 락음악과 흑인음악에서 보편적으로 흐르던, 사회비판이나 특유의 지배계급에 대한 공격성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즐길 뿐이다.

대학가에 직수입된 '저항의 문화'들, 그러나 '주체적 변용' 과정이 전혀 없었다. 얼터너티브 락이나 레게 등의 외래장르가 저항적인 기원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나라의 제도권 문화장치인 각종 '오버그라운드'에서도 대항장르로서 유통될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그리고 숙련화된 창작자로부터 대중을 향락적인 소비자로 주술화시키는 자본주의 대중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았다.

이 '사이비 문화혁명'의 실패는, 대학 문화운동의 시급한 과제는 저항적이지만 대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스스로 실험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예술, 그 적대적인 전선

현대사회에서 대중예술이 갖는 대중업적 기술복제를 놓고 발터 벤야민이라는 문예비평가는 '아우라' 분 위기나 느낌, 감동과 같은 작품 고유의 것들 상실의 시대 라고 단정하였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의 예술 창작은 여러사람의 '제작 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고 대량소비되는(오늘날 영화 하나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은 세분화되어 시나리오 전문가와 촬영전문가, 소품전문가, 의상전문가, 분장전문가, 조명전문가가 따로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예술은 하나의 엄연한 '제작 공정'을 갖고 있다), 작가정신과 예술혼을 상실한 대규모 문화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은 창작자로부터 소외된 향락적 소비자로서의 대중을 양산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작가주의 영화나 독립영화, 얼터너티브 정신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수용자 운동'에 불과하다. 물론 대중문화를 즐기고 대중예술을 감상하는 대중들의 식견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세워야 할 일은 대중이 자본주의적 문화산업에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소외된 본업 체계 즉 대중은 향락하는 소비자로서만 기능하는 것-를 극복하고 직접 자생적 하위문화를 생산하면서 즐기고 실험하는 것이다.

‘대학 하위문화 운동’을 주창한다!

대학 문화운동이 지배적 문화담론을 비판하는 대안문화를 고민해나가야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 그를 위해서 당장의 필요는 바로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생성시키는 학생사회의 자발력을 얼마나 믿는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대학 문화운동에서는 ‘민중문화’, ‘지배계급의 문화’ 하는 식으로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설정이 팽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대학사회에서 예전과 같은 ‘문화정책’이나 ‘노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대학기구, (총)학생회가 가졌던 하향식 문화생산 방식은 국가와 매체와 같은 지배적 주류질서의 문화 생산관계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한채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상향식 소통’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문화를 비후하게 하고 그 속에서 실험적 전위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대중운동이 더이상 국가기구의 본래와 자본주의 시장의 철폐를 전제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의 정치학’은 시작한다. 목적의식적 계도가 아닌 대중의 자발성에서 지배질서에 대한 새로운 전복의 가능성을 찾자는 전략설정은 다분히 ‘전위(Avance Guard)’의 옹호자’들에게는 이단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 속에서 가장 폭발적인 가능성을 찾아가는 문화의 정치는 그 무엇보다도 전략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며, 문화와 예술의 부흥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학사회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며, 다양한 대학사회 속에서의 융해과정을 거쳐 재구성되는 대안적 문화들을 지지보좌할 것이다.



31대 총학생회는 동덕의 대 학문화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직접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포럼”

수세적 표현의 자유로부터 공세적 표현의 자유를 향하여 일선 대중예술가들과 문화이 론가들과 함께 진솔한 토론을 전개합니다.

“합당문화제”

역량있는 다양한 학내 공연예술동아리들을 발굴하여, 재미있는 공연을 펼칩니다.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양보해 본적이 없는 이른바 여론이라는 것이 지닌 편견에 대해서는 저 위대한 플로렌스인(단테)의 모토가 나에게 변함없이 타당하다.

“너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Segui il tuo corso, e lascia dir le genti)”

-칼 맑스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연대투쟁

사상최악의 취업률 속에서 각 대학은 취업박람회의 대대적 개최를 통한 기업모셔오기, 기업의 입맛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4년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어학연수, 토익 및 입사시험준비, 고시준비등으로 대학생들은 5-6년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



청년 사교육비를 감수하면서, 경쟁의 원리속에 대학생활을 송두리째 바치면서 얻은 미래가, 과연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올해 초 해방 이후 최초의 국민적 총파업을 이끌어냈던 것은 "쓰다가 팔라버릴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자본의 파렴치함과 믿을 수 없는 권력의 날치기 폭거였습니다. 경제위기, 아니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의 책임을 먼저 노동자와 국민에게서 찾아내려는 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는 경쟁과 야만적 논리앞에 무기력한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94년 3월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수상이 제시한 취업계약제를 거부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5주간의 연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적게 지불할수록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익부/빈익빈"의 정권의 논리를 거부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여 마침내 취업계약제를 철회시켰던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위주의 세력관계를 뒤흔들어 놓지 않는 한, 노동자와 대



학인이 분열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고 연대감을 획득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축소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방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투쟁을 일구어갑시다.

공안탄압반대투쟁, 각종 공안기구및 악법철폐

한총련 출범식을 거치면서 정권의 공안 카르텔은 그야말로 학생운동을 말살시키고자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연행과 구속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학우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대중조직에 대해 자의적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면서 공권력의 폭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부는 학생지도지침이라는 80년대식 학원통제방침을 전국 대학에 하달하여 학생자치활동마저 거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첫째,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인 이적단체 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검거경쟁과 수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학우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80년대식 학원안정화 대책인 교육부의 학생지도지침은 폐지되어야 하며, 학 학교 차원의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기부 등의 정보기관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모든 반민주악법은 해체/철폐되어야 합니다.

빈민, 철거민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생존권압살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5일 전동 3동에서는 철거용역에 의한 강제철거과정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 철거민 박순덕씨가 불길에 피해 18미터 높이의 철탑망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당시 철거장패 300여명과 전투경찰 600여명이 출동하여 강제철거가 이루어졌는데, 철제망루에서 농성중이던 10명의 철거민을 몰아내기 위해 전투경찰이 난사한 최루탄과 철거장패들이 페타이어에 끼얹은 신나에 불이 붙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철거민들이 18m 높이의 망루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정치의 추잡한 대권다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빈민, 철거민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생존권압살에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반전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대북 대인지뢰 한반도 예외’ (!?)

지난 17일 세계 89개국 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모든 대인지뢰의 제조·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남한사회의 대인지뢰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특수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한반도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을 거부했다. 한반도의 지뢰는 대부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휴전선 안에 있으며, 오히려 전쟁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주장이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탱크로 한 시간 밖에 안걸린다. 휴전선에 진전돼진 북한 병력이 기습 침공할 경우, 지면이 초기 대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대인지뢰는 숫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특히 대전차지뢰 주변에 함께 매설함으로써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군이 대전차지뢰를 쉽게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국방부장관의 말은 북한의 남침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엔 대인살상용 무기를 한반도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평의 된다. 압도적 차원에서 대인지뢰배설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지뢰가 전쟁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이중의 잣대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북한이 엄청난 군사강국으로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의 남침이 걱정되어 대북대인지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한편에서 벌어지는 ‘북한민중의 아사사태’를 보는 눈은 정말 냉혹하다. 그들은 경제적인 빈곤을 안고 사는 봉건군주사회가 바로 북한이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이들의 눈에는 북한민중의 아사사태가 직접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측은하게 보이지는 않는가 보다. 대북 쌀지원이 군량미로 유용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대북 쌀지원을 막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고, 심지어 민간차원의 쌀보내기운동조차 이들의 논리에 의해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나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 북한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못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함에도, 그들은 북한을 엄청난 군사대국쯤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다. 북한은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집단이다. 과연 그러한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현대사회의 전쟁은 ‘경제전’이다. 경제력의 정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북한민중의 아사사태만 보더라도 북한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경제력을 가진 사회일 뿐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남침 운운하며, 북한을 거대군사강국인 양 표현하고 전쟁위기를 퍼뜨리지만 사실 북한은 경제가 낙후되어 국민이 굶어죽을 지경에 있는 허약한 나라일 뿐이다. 심지어 군사비의 총액만을 따져도,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북한민중 아사사태와 패권다툼

공중과방송과 신문 등에서 연일 굶어서 차마 죽지 못하고 매마른 북한민중들을 볼 때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보수언론의 발언이나 4자회담을 전제로 해서야 정부차원의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이전에 남한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로 인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민중들의 명이 계속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자국민들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가면서도, 대책을 수립하기는 커녕 체제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비판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남한 정권의 태도가 옳바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상반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통일운동에 발목을 거는 김영삼정권의 대북정책 또한 문제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상호체제의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전쟁대결구도로 몰아 가고, 자국 민중들의 생존환경권과는 관계없이 무한대로 경쟁하고 있는 군비증강이 문제이다.

시야를 좀더 넓혀보자. 동북아시아의 패권다툼에서 남북민중의 생존환경권은 철저히 묵살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세계핵심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패권을 동북아에서도 여전히 유지하려 한다. 이를 쫓는 일본은 세계 1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보장을 위해 정치·군사적 팽창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화교경제권으로

대만, 홍콩을 안정적으로 계속시키고자 하는 중국은 남북의 문제에 비교적 점잖게(?) 개입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흡수통일을 중심으로 중심부국가 편입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북강경정책과 온건정책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김영삼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의 경우 '점진적 개방'을 모색하면서도, 통일이후까지도 김정일을 비롯한 세력들의 권력 및 체제유지에 여력이 없다. 한편 미국정부는 '연착륙정책'이라는 기치 아래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한정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간직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1위라는 입지점을 넘어 군사적 패권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증강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군비와 직선기항선포 주장 등을 보면, 일본이 적어도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교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함에 있어 남북의 대립구도를 어떻게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정확히 표출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기에 진정한 문제는 동북아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에서 어떤 국가도 북한민중의 아사사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체 민중의 생존환경권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정자들의 패권놀이, 전쟁놀음에 일차적으로는 북한민중의 아사사태가 방치되고 있고, 남북민중의 생존환경권이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의 민중의 생존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다.

통일가능한 정세의 도래, 그러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미 일정에 올랐다. 우리는 흡수통일의 일정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가지일 뿐이다. 남북민중의 생존권과 미국의 호전성에 의한 전쟁발발에 대한 경계가 바로 그것이다.

대북 쌀지원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북한 고위당명자 황장엽은 "북한에게 최소한의 원조는 필요하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을 10년간 북한에 투자하면 북한도 일어설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밥만 먹으면 일을 잘 한다."는 말을 이제 서슴치 않는다. 북한의 호전성 때문에 남한국민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을 것을 염려하여 망명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말속에서 드러나는 남한자본과 권력집단의 인식이다. 세계로 진출하는 자랑스런(?) 한국기업이 국익의 신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 출혈적 테러리즘에 기반한 착취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문제에서 여실히 보아 왔다. 만일 (흡수)통일된 강력한 한국의 정권과 자본은 북한민중에 대해 철저한 수탈을 가하지 않을 것이란 어떤 보장도 없다.

한편 극우 보수의 논리는 여전하다. 북한은 호전적이고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등등. 솔직히 말하자, 남한의 군사비용이 북한보다 그 실액수에서 훨씬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 북한이 지금 수준에서 아무리 열심히 군비를 증대해도 남한과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다. 북한의 군비증강은 자국의 정권을 유지하기 급급한, 그래서 자국 국민들의 아사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북한이 호전적인 성격을 갖추어서라기보다 미국의 선택과 호전성이 문제

일 것이다. 대북 대인지뢰철수를 끝까지 거부한 미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도 북한이 더 호전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본다. 대북 대인지뢰를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미국과 남한정부의 기만적인 논리를 통박한다. 미국에게 전쟁은 선택문제일 수 있지만, 남북민중에게 전쟁은 사활문제이다. 특히 핵사용의 금지, 대인지뢰철수, 제한없이 해결되어야 할 북한민에 대한 지원 등에서 남북민중은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변혁과 남북민중의 생존환경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억압적 행동에 맞서야 한다.



실천공약

반전 평화 인권 포럼의 개최

반전 평화 인권 포럼의 개최

'반전평화'는 남북민중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미국에게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남북민중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말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돕기 운동에 있어서조차,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과 불쌍한 자들을 돕는다는 시혜성에서 단호히 단절할 것을 주장한다. 민족주의와 시혜성에서 탈피해야 하는 이유는 근대 국가가 조작한 민족이라는 억압적 공동체를 넘어 전세계 인민대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협소한 민족주의, 인종주의의 틀을 넘어선 (반전 평화 인권 포럼)의 개최로 다양한 입장과 교류하고 21C 새로운 평화와 인권에 대한 비전을 모색할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향한 대학과 노동의 연대

대학과 노동의 연대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행동

1997년 대학은 바야흐로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취업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밟아야 하고 나 만큼은 다른 이들을 딛고 오를 수 있다는 서글픈 기대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야만 할까요? 12년간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했지만 또다시 경쟁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 만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당당한 행동은 불안에 저당잡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에 함께한 사람들과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연대는 노동자와 민중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생산과 노동의 주인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이 먼저 나서 노동과 연대를 실현합니다. 미래를 위한 대학과 노동의 연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2000년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노동자 후보와 함께 2000년대 민중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97년 대선은 2000년대 한국사회를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정치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 5인의



후보들은 비슷한 정책과 비슷한 비전으로 세력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치와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대다수 민중 등의 희망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되거나 그래도 될 사람 밀어주자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용



불안으로 인해 삶이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작 정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치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치권이란 것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진실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김대중'도 아니고 '이인제'도 아닙니다. 1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자 후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정치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의 버팀목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그 지름길입니다. 새로운 한국사회는 대학과 노동의 연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민주와 진보를 향한 우리의 실천, 대선실천단을 건설합니다.

노동자 후보와 연대하는 대선실천단을 건설합니다. 대선실천단은 첫째, 노동자 후보와 연대하는 대선투쟁을 벌여나갑니다. 노동자후보 지지/지원 사업,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다양한 운동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주장해나갑니다. 둘째, 보수정치의 추잡한 대권다툼이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민중의 정치적 권리 축소로 드러나는 바, 이같은 한국사회의 퇴행성과 부패성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갑니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고용, 실업, 취업불안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연대해나가며, 노조탄압과 빈민생존유린등 기층 민중에 대한 억압에 맞서 계속적으로 투쟁해나갑니다.